



금방울전 | 작자 미상

하루는 막 씨가 일만 가지 시름을 띠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바탕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며 초막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곧 삼랑이었다. 막 씨가 놀라서 묻기를,

“그대가 나를 버리고 나간 지 거의 수십 년이라. 간 곳을 몰라 의심하고 염려하는데 신령이 이르기를 난중에 죽었다 하매 꿈을 믿을 것이 아니로되 역력히 들었으므로 영연(靈筵)¹⁾을 배설²⁾하였는데 의심컨대 살아 서로 보는 것입니까? 어찌 깊은 밤에 거취가 분명하지 아니합니까?”

삼랑이 목이 메어 이르되,

“과연 그대의 덕을 모르고 탕자의 마음을 건잡지 못하여 그대를 박대한 죄로 하늘이 내린 재앙을 받아 난중에 죽으매 후천에 가도 또한 죄인이라. 깨달으나 가히 미치지 못할 바이오, 귀신의 무리에도 참례하여 섞이지 못하고 음풍에 다니는데 그대가 나를 위하여 지극히 제사 지내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비록 유명이 다르기는 하나 그 감격함을 사례하고자 하노라.”

하고, 생시와 다름이 없이 수작하다가 돌아간 후 자주 왕래하여 몽중에 친밀함이 있었다. 막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며 마치 태에 아이가 노는 듯하여 배가 점점 불러왔다. 심히 고이하게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였는데, 열 달이 이르러서는 해산 기미가 있어 초막에 엎드려 있다가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오, 금방울 같은 것으로서 금빛이 찬란하였다. 막 씨가 크게 놀라 고이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왔다.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벼이 떠다니다가 막 씨가 가는 것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왔다.

막 씨가 헤아리되,

‘나의 팔자가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니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하고 불을 땔 때에 아궁이에 두리켰다가 닳새 후에 헤쳐 보니, 금방울이 뛰어나오는데 상하기는커녕 금빛이 더욱 짙어지고 향내가 진동하였다. 막 씨가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와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침떠서³⁾ 날아가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

[A]도 따 가지고 와서 막 씨 앞에 갖다 놓았다. 막 씨가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에 솔잎이 있어 평소에는 반반하고 보이지 아니하였다. 추위를 당하여도 금방울이 굴러 품에 들

어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쥘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초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았다. 막 씨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초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라운 정도로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가 낮과 같았다. 막 씨가 기이하게 여기고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초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중략 부분 줄거리] 동리에 사는 묵손이라는 자가 금방울을 욕심내어 도둑질해 갔으나 금방울의神通력으로 재앙을 받는다. 묵손은 고을 수령인 장 공에게 참소하여 금방울과 막 씨가 옥에 갇힌다. 그러자 금방울의 조화로 장 공 부부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부인이 막 씨를 놓아줄 것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하였다. 장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돈을 주어 일생을 평안하게 하였다.

차설. 장 공이 뇌양현에 온 후로 몸이 편안하나 주아로 해룡을 생각하고 부인과 함께 슬퍼하였다. 부인이 이로 말미암아 침식에 누워 위독하게 되어 백약이 무효하며, 공이 밤낮으로 병자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루는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침의 팔자가 기박하여 한날 자식을 난중에 잃고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한 것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음인데 십여 년 동안 존망을 모르매 병이 골수에까지 스며들어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충하소서.”

하고 숨이 끊어졌다.

장 공이 낫을 대고 애통하여 자주 기절하며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였는데, 밖에서 금방울이 굴러 부인시체 앞으로 들어갔다. 모두 보니 방울이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가 놓고 갔다.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인데 가늘게 보은초라 씌어 있었다. 장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의 입에 넣었다.

[B]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움직이며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었다. 장 공이 병세를 물으니 부인은 자고 나매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였다. 공이 방울의 전말을 말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그 후로 부인의 병이 과연 평복(平復)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서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 사례하고 결의형제가 되었다. 그 후로는 금방울이 굴러 부인 앞

에 오거늘 공의 부부가 사랑하여 손에서 놓지 아니 하니, 방울이 아는 듯이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였다. 이에 ‘금령(金鈴)’이라 이름하였다. 금령이 낮이면 제집에 갔다가 밤이면 돌아와 품에 들어와 잠을 자니 정의가 골육보다 더하였다.

하루는 금령이 무엇을 물어 왔거늘, 장 공의 부부가 고이하게 여기고 집어 보니 작은 족자와 같았다. 펴보니 작은 아이가 길가에 앉아 우는데, 사면에 도적이 쫓아오고 남녀 두 사람이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며 울고 돌아보는 형상을 그렸고, 또 한 장수가 그 아이를 업고 시골집으로 가는 형상이 그려 있었다.

장 공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분명 우리가 해룡을 버리고 가던 형상이로다.”

부인이 또한 울며 말하기를,

“어찌 죽지 않은 줄 아시나이까?”

장 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업고 마을로 들어가는 형상이라. 생각건대 누군가가 기르려고 업어 감이 확실하거니와, 금령이 신통하여 우리가 설위하는 줄 알고 죽지 않은 줄만 알게 하고 있는 곳은 가르치지 아니하니 이도 또한 하늘의 뜻인가 하노라.”

하고 침상에 족자를 걸고 보며 슬퍼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다.

그 후에 금령이 홀연 간데없이 사라졌다. 막 씨가 울며 내아에 들어와 금령이 간데없음을 이르니, 장 공 부부가 놀라며 슬퍼함을 마지아니하였다.

[뒷부분 줄거리] 금령은 해룡이 지하국 요괴에게 납치된 금선 공주를 구하는 것을 돕는다. 해룡은 부마가 된 후 전장에 나가 금령의 도움을 받아 적을 물리쳐 큰 공을 세운다. 이후 금령은 허물을 벗고 예쁜 처녀로 변신한 후 신통력을 잃게 된다. 금령은 황제의 허락을 받아 해룡과 혼인하였으며, 금선 공주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어휘 풀이]

1) 영연 - 죽은 사람의 영귀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 2) 배설 - 연회나 의식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3) 칩떠서 - 몸을 힘차게 솟구치어 높이 떠올라서.



핵심점점

<금방울전>

☑ 구절풀이

• 하루는 막 씨가 일만 가지 시름을 띠고 앉아 있었는데,

- ‘막 씨’가 걱정이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갑자기 한바탕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며 초막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 ‘초막’을 통해, ‘막 씨’가 제대로 된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의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를 통해, ‘막 씨’의 ‘초막 생활’이 부모의 삼년상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곧 삼랑이었다. 막 씨가 놀라서 문기를, “그대가 나를 버리고 나간 지 거의 수십 년이라.

- ‘삼랑’이 ‘막 씨’의 배우자로서, ‘막 씨’를 떠난 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간 곳을 몰라 의심하고 염려하는데 신령이 이르기를 난중에 **[전생애]** 죽었다 하매 꿈을 믿을 것이 아니로되 역력히 들었으므로

- ‘신령’의 말을, 막 씨가 꿈에서 들었음을 알 수 있다.

• 영연(靈筵)*을 배설*하였는데

- 그대를 위해 제사상을 차려놓았는데

- ‘막 씨’가 꿈에서 신령의 말을 듣고 남편 삼랑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의심컨대 살아 서로 보는 것입니까?

- 우리가 지금 살아서 서로를 보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다.

• 어찌 깊은 밤에 거취가 분명하지 아니합니까?”

- 그대가 거처하는 곳이 진정 이승입니까 저승입니까

• 삼랑이 목이 메어 이르되, “과연 그대의 덕을 모르고 탕자의 마음을 건잡지 못하여 그대를 박대한 죄로 하늘이 내린 재앙을 받아 난중에 죽으매

- 막 씨가 꿈에 본 신령의 말이 옳은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후천(後天)에 가도 또한 죄인이라.

- ‘재앙’, ‘죄인’ 등의 단어를 통해, 삼랑이 생전에 막 씨를 박대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 깨달으나 가히 미치지 못할 바요,

- 깨달았으나, 이미 늦어버린 것이어서

• 귀신의 무리에도 참례하여 섞이지 못하고

- 귀신의 무리에도 속하지 못하고

• 음풍에 다니는데

- 음산한 저 바람에 실려 여기 저기 떠다니는데

- ‘삼랑’이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 즉 귀신인 것이다.
- **그대가 나를 위하여 자극히 제사 지내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 삼랑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 **비록 유명이 다르기는 하나 그 감격함을 사려하고자 하노라.”**
- 비록 삶과 죽음의 길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대에게 조금이나마 (나를 잊지 않고 제사장을 차려줌) 은혜를 갚고자 하노라
- **하고, 생사와 다름이 없이 수작하다가 돌아간 후 자주 왕래하여 뭉중에 친밀함이 있었다.**
- 살아 있을 때와 서로 말을 주고 받다가 꿈에서의 만남이었음에도 서로 간에 친밀함이 있었다
- 막 씨와 삼랑의 만남이 꿈에서 만남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막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며 마치 태에[배속]에 아이가 노는 듯하여 배가 점점 불러 왔다.**
- 비현실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 **심히 고이하게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였는데,**
- 죽은 남편의 혼과 수작하여 임신한 것이므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한 것이다.
- **열 달이 이르러서는 해산 기미가 있어 초막에 엎드려 있다가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오, 금방울 같은 것으로서 금빛이 찬란하였다.**
- 태어난 것이 사람이 아니라 금방울인 것이다. 이는 **영양의 비현실적 출생**에 해당한다.
- ‘문제 3번 <보기>’의 ‘알로 태어난 주몽’과 유사하게 본 글의 주인공이 ‘구슬’이라는 ‘둥근 형태의 물건’으로 태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들의 이러한 기이한 출생은 이들의 삶이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삶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즉, 난생설화가 변용된 것이다.
- **막 씨가 크게 놀라 고이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왔다.**
- 금방울의 신이한 능력① 이는 **영양의 탁월한 능력**에 해당한다.
- 주인공 ‘금방울’이 ‘막 씨’에 의해 처음에 버림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금방울’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벼이 떠다니다가 막 씨가 가는 것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왔다.**
- 금방울의 신이한 능력② 이는 **영양의 탁월한 능력**에 해당한다.
- 금방울의 이러한 모습은 막 씨를 따르려는 혹은 막 씨와 함께 있으려는 금방울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 **[A]막 씨가 해아리되, ‘나의 팔자가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니 티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을 땔 때에 아궁이에 두리쳤다**

- 막 씨는 금방울을 낳은 것에 놀라 없애고자 한다. 이는 **영양의 신화**에 해당한다.
- **닷새 후에 헤쳐 보니, 금방울이 뛰어나오는데 상하기는커녕 금빛이 더욱 싹싹하고 행내가 진동하였다.**
- 금방울이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보여준다.
- **막 씨가 하릴없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와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떠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서 막 씨 앞에 갖다 놓았다.**
- 금방울은 막 씨 곁에 머물며 딸처럼 막 씨를 봉양한다.
- **막 씨가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탈에 술잎이 있어 평소에는 반반하고 보이지 아니하였다.**
- 금방울의 외양이 묘사되고 있다.
- **추위를 당하여도 금방울이 굴러 품에 들어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밖]로 나가서 남의 방아를 찢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초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았다. 막 씨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초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라울 정도로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가 낮과 같았다.**
- 금방울이 막 씨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막 씨가 기이하게 여기고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초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잤다.[A끝]**
- 금방울을 품에 안고 자는 막 씨의 모습을 통해, 금방울에 대한 막 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중략 부분 줄거리] 동리에[마을]에 사는 묵손이라는 자가 금방울을 욕심내어 도둑질해 갔으나 금방울의神通력으로 재앙을 받는다.**
- 금방울이 사람들의 일에 개입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묵손은 고을 수령인 장 공에게 참소하여 금방울과 막 씨가 옥에 갇힌다. 그러자 금방울의 조화로 장 공 부부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 금방울이 신이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동해 용왕의 아들이 요괴의 공격을 받아서 장 공 아내의 몸 속으로 피해서 해룡으로 태어난다. 장 공 부부는 해룡의 부모이다.
- **부인[장 공의 부인]이 막 씨를 놓아줄 것을 권하니**
- 장 공의 부인이 막 씨를 향해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하였다.**
- 장 공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막 씨를 놓아주니 먹고

자는 것이 평온해졌다

•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 막 씨의 초막 생활이 '효행'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돈을 주어 일생을 평안하게 하였다.

- '막 씨의 효행'이라는 막 씨의 행적을 들은 장 공이 막 씨가 편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 차설.

- '차설'은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낼 때, 앞서 이야기하던 내용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다음 이야기의 첫머리에 쓰는 말'이다.

• 장 공이 뇌양현에 온 후로 몸이 편안하나 주야로 해룡(海龍)의 아픔을 생각하고 부인과 함께 슬퍼하였다.

- 장 공 부부는 아들 해룡을 피난길에 잃어버렸다.

• 부인이 이로 말미암아 침석에 누워 위독하게 되어 백약이 무효하며, 공이 밤낮으로 병자의 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루는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첩의 팔자가 기박하여 한낱 자식을 난중에 잃고

- 장 공 부인이 해룡을 잃은 것에 대해 자신의 '기박한 팔자'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한 것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음인데 십여 년 동안 존망을 모르매 병이 골수에까지 스며들어 명이 오늘뿐이라.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중하소서." 하고 숨이 끊어졌다.

- '부인'의 말을 통해 장 공 부부가 해룡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해룡을 잃은 후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기에, 본 글에 대해서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자식을 잃어버린 일을 한으로 여기고 있다. **각골통(刻骨痛恨)**

• [B시적]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주 기절하며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였는데, 밖에서 금방울이 굴러 부인 시체 앞으로 들어갔다. 모두 보니 방울이 풀잎 같은 것을 물עד다가 놓고 갔다.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인데 가늘게 보은초(寶恩草)에 보답하는 툇라 씌어 있었다.

- 금방울이 막 씨에게 도움을 준 인물을 구해 준 것이다.

• 장 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하고 그 풀을 부인의 입에 넣었다.

- 장 공 부인은 막 씨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장 공에게 막 씨를 놓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움직이며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었다.

- 식경: 잠깐 시간이 지난, 본래 '밥을 먹을 동안'이라는 뜻이다.

- 금방울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금방울의 신비한 능력

• 장 공이 병세를 물으니 부인은 자고 나매 정신이 싹씩하다고 대답하였다. 공이 방울의 전말을 말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 부인이 죽고, 금방울이 보은초를 가져왔으며, 이를 먹은 부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의 진행과정이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그 후로 부인의 병이 과연 평복(平復)하니[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서 재생지은(再生之恩)[다시 살아나게 된 은혜]을 만만 사레하고[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되] 결의형제가 되었다.

- '막 씨의 집'에서 장 공의 부인과 막 씨가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되기에, '막 씨의 집'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공간인 것이다.

• 그 후로는 금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공의 부부가 사랑하여 손에서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이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였다. 이에 '금령(金鈴)'이라 이름하였다.

- 이름 없이 '방울'로만 인식되던 '금방울'이, 이제는 '금령'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름을 얻고, 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 금령이 낮이면 [막 씨가 있는]제집에 갔다가 밤이면 돌아와 [장 공 백의] 품에 들어와 잠을 자니 정의가 골육보다 더하였다. [B 필]

- 애통함이 친 자식보다 더하였다

- 금방울이 장 공 부인을 살리고, 이후 장 공 부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 하루는 금령이 무엇을 물어 왔거늘, 장 공의 부부가 고이하게 여기고 집어 보니 작은 족자와 같았다. 펴보니 작은 아이 [태를 개리]가 길가에 앉아 우는데, 사면에 도적이 쫓아오고 남녀 두 사람 [장 공 백의]이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며 울고 돌아보는 형상을 그렸고, 또 한 장수가 그 아이를 업고 사골집으로 가는 형상이 그려 있었다.

- 피난길에서 장 공 부부가 해룡을 버리고 간 모습을 그린 것이다.

• 장 공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분명 우리가 해룡을 버리고 가던 형상이로다."

• 부인이 또한 울며 말하기를, "어찌 죽지 않은 줄 아시나이까?"

• 장 공이 말하기를, "사람[한 장수]이 업고 마을로 들어가는 형상이라. 생각건대 누군가가 기르려고 업어 감이 확실하거니와, 금령이 신통하여 우리가 설워하는 줄 알고

- 금령이 장 공 부부와 해룡의 관계를 알고 있음을 짐작

하게 하는 대목이다.

- 죽지 않은 줄만 알게 하고 있는 곳은 가르치지 아니하니 이
도 또한 하늘의 뜻인가 하노라.”하고 침상에 죽자를 걸고 보며
슬퍼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다.

- ‘장 공’이 금방울이 가져온 죽자를 보고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 후에 금령이 출연 간데없이 사라졌다. 막 싸가 울며 내야(재방
관아에 있던 안채)에 들어와 금령이 간데없음을 이르니, 장 공
부부가 놀라며 슬퍼함을 마지아니하였다.

- [뒷부분 줄거리] 금령은 해룡이 지하국 요괴에게 납치된 금
선 공주를 구하는 것을 돕는다.

- ‘지하국 요괴 납치 사건’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 해룡은 부마(왕의 사위)가 된 후 전장에 나가 금령의 도움을 받아
적을 물리쳐 큰 공을 세운다.

- ‘문제 3번 <보기>’의 ‘주몽 이야기’와 달리, ‘금령’이 다
른 사람은 많이 도왔어도,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금령’이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압도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후 금령은 허물을 벗고 예쁜 처녀로 변신한 후 신통력을
잃게 된다.

- 금령이 사람이 아닌(여자가 아닌) 구슬의 형태로 존재할 때
만 초월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변신설화, <박씨전>의 박씨 변신과 의미가 유사하다.

- 본 글의 배경이 ‘여성의 능력 발휘가 억압되어 온 가부장적인
중세 사회’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령의 이러한 차별적
능력 발휘는, 여성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던 당시
사회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한
소설적 설정일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금령은 황제의 허락을 받아 해룡과 혼인하였으며, 금선 공주
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

☑ 특징

- 전기적, 도술적
- 다양한 설화(난생 설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변신 모
티프 등)가 융합되어 있음
- 두 등장 인물(해룡+금방울)의 성격과 역할이 상호보완
적임

✓ '금방울'의 영웅적 면모

고귀한 혈통	남해 용왕의 딸이었음.
비정상적 출생	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남.
탁월한 능력	아무리 해치려 해도 살아나고 갖가지 신이한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움.
시련과 고난	금방울을 낳은 막씨가 금방울의 모습을 보고 놀라 없애려고 함.
위기의 극복과 성공	• 신이한 능력으로 막씨를 돕고 막씨에게 인정을 받음. • 요괴에게 잡아먹히지만 요괴의 뱃속에서 요괴를 찢어 쓰러지게 함.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주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혼사에 성공하는 금방울(금령)의 삶
- 해제: 이 작품은 남주인공 해룡과 여주인공 금령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혼인을 함으로써 전생의 인연을 되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령의 적극적인 활동과 남녀 간의 애정 성취는 당시 여성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귀 획득과 신분 상승은 권력에서 소외된 피지배 계층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주인공의 고난과 시련은 이런 독자들의 고통 받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김원전>의 김원도 해룡과 같이 요괴를 죽이고 공주를 구한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 작품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 전체 줄거리: 이 작품의 남주인공인 해룡과 금령은 원래 동해 용왕의 아들과 남해 용왕의 딸이었다. 용자와 용녀는 혼인을 하고 신방굴에 나섰다가 요괴의 공격을 받아 용녀는 죽고 용자는 장원 부인의 뱃속으로 몸을 피한다. 그 후 용자는 장원의 아들 해룡으로, 용녀는 라복 막 씨에게서 금방울로 태어난다. 금방울은 신출귀몰하는 재주로 어머니를 도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다. 금방울은 장원의 부인이 병을 얻었을 때 부인의 생명을 구해 준 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장원 부부와 막 씨는 금령의 연을 맺는다. 그 후 금방울은 두 집안을 오가며 충언을 받는다. 한편 해룡은 세 살 때 대만을 가다가 복귀를 잃는 등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았으나 그때마다 금방울의 도움을 받아 살아난다. 또한 지하국에 사는 요괴에게 납치된 금선 공주를 구할 때에도 금방울이 도움으로 죽어 마친해 해룡은 금선 공주와 혼인하여 황제의 사위가 된다. 그 후 금방울은 액운이 다해 허물을 벗고 절세미인이 되고, 황제는 금방울을 양녀로 삼아 금령 공주라 칭하고 해룡과 혼인시킨다. 해룡은 두 부인을 거느리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금선 공주가 죽은 후에 금방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 살려 내고 오랫동안 행복을 누린다.



'개념' 있는 킹콩

1. 전생에 용녀였던 금령은 이 글에서 누구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되는가?
2. 삼랑이 그의 처를 박대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부분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각각 쓰시오.
3. 금방울은 구슬로 있을 때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대의 사회상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서술하시오.
4. 삼랑은 수십 년만에 살아 돌아와 자신의 아내인 막 씨와 재회하게 된다.
5. 막 씨는 열 달이 이르러서 금빛이 찬란한 것을 해산한 후, 그것을 귀중하게 여긴다.
6. 인간과 귀신 사이에서 태어난 금방울을 통해 '주인공의 신이한 출생'이라는 화소(話素)를 읽을 수 있다.
7. 이 작품은 <주몽 신화>와 마찬가지로 현실계가 비현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난다.
8. 막 씨가 금방울을 실수로 아궁이에 두리친 후에도 방울의 빛은 더욱 씩씩하고 향이 진동하였다.
9. 금방울은 엄동설한에 한데서 막 씨 대신 방아를 대신 찢어 주는 등 막 씨의 일을 도왔다.
10. 막 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모습을 보이는데, 금방울은 그러한 막 씨의 어려움을 도와준다.
11. 막 씨는 금방울에 대해 줄곧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문에서 막 씨와 금방울의 갈등을 찾아볼 수 없다.
12. 주몽과 달리 금방울은 처음부터 그가 가진 능력의 우수함을 인정받는다.
13. 묵손의 참소로 금방울과 막 씨가 옥에 갇히자 금방울의 조화로 장 공 부부는 고통을 당한다.

14. 아들 해룡을 잃은 데서 받은 충격과 남편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인해 장 공 부인은 침식에 늙게 된다.

[O X]

15. 해룡이 금선 공주를 구한 뒤 부마가 되자 금령은 허물을 벗고 예쁜 처녀가 되어 흔적을 감춘다.

[O X]

[O X]



[개념있는 키크]

①막 씨 ②과연, 바이오 ③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는 유교 사회에서 주인공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설정이다. ④X ⑤X ⑥O ⑦X ⑧X ⑨X ⑩O
⑪X ⑫X ⑬O ⑭X ⑮X